韓國敎會史學會誌 第69輯(2024) 75-103
https://doi.org/10.22254/kchs.2024.69.03

기독교형제단 출현의 역사적・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방기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박사 / 서청주교회, 목사)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 기독교계에 생소한 기독교형제단 기원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목적한다. 기독교형제단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있다. 그것들은 '초대교회 계승설', '신약성경적 교회들의 영적 계승설', '19세기 형제운동 기원설'이다. 앞의 두 기원론은 역사적·학문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기독교형제단은 18세기와 19세기 유럽과 영국 제도의 역사적·신학적 상황 가운데 출현한 신앙 운동이었다. 형제단의 원동력이었던 형제운동의 주요 인사 중 특수침례교회 목회자들이 있었고, 기독교형제단의 교회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형제단의 교회론적 특성은 자유교회 전통을 반영한다. 자유교회는 오랫동안 유럽의 기독교 세계에서 당연시 되었던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함으로 시작된 교회론을 말한다. 기독교형제단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체제나 방식에 경종 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유교회전통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추구해 왔다. 기독교형제단의 추구와 실행을 오늘날의 교회에서 적용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회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교회 일원으로 영접함으로써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축약본이다. 방기만, "기독교형제단 출현의 역사적·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I. 서론

한국 교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형제단(Christian Brethren)[1]은 교회사에 있어서나 전 세계 기독교 지형에 있어서 중요한 그룹이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형제단의 기원과 신학, 그리고 기독교 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관련 연구도 미미하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본을 따르기를 소망한 형제단은 자신들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출현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성경적 교회라고 믿는다. 이러한 역사 인식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형제단의 기원의 문제를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규명하고 형제단이 균형 잡힌 역사관과 자신들의 고유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의 기독교계에서 형제단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독교 내의 건전한 신학의 다양성과 교회론적으로 폭넓은 대안들을 확충함으로써 기독교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연구자는 먼저 2장에서 자유교회 전통(Free church tradition)과 그 역사를 고찰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연구자가 형제단을 자유교회 전통의 무리에 속한 교단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자유교회 전통은 16세기 아나뱁티스트(Anabaptists)에게서 처음 발견된다. 그들은 국가교회 체제를 반대하고 신자들의 교회를 이루고자 했던 무리인데, 자유교회(free

1)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기독교형제단'은 다양하게 명명되어왔다. 그중에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호칭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호칭이 형제단 내부에서 어떤 특정 그룹을 가리키기 때문에 '기독교형제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기독교형제단'은 스스로 특정 교파명으로 불리길 원치 않으며, 대외적으로 자신들을 구분하는 명칭으로 '플리머스 형제단'보다는 '기독교형제단'으로 불리길 원한다. 따라서 '기독교형제단'이 공식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기독교형제단'이란 명칭을 사용하되, 이후의 내용에서는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서 '기독교형제단'을 '형제단'으로 줄여 사용하고자 한다.

church)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것은 그들이 국가교회로부터의 자유(free)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자유교회는 국가에 의해 신앙이 강제된 형태의 교회를 반대하고 종교의 자유 가운데서 자의에 의해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 따라서 자유교회를 신자들의 교회라고 교환하여 칭하기도 한다. 신자들의 교회 개념에 대하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남병두는 일곱 가지 특성을 주장하였는데, '국가교회를 거부하는 교회,' '회개와 믿음으로 중생을 체험한 자들의 교회,' '침례를 통한 신앙고백과 헌신에 기초한 제자들의 공동체,' '자발적 믿음과 자발적 교회,' '모이는 교회,' '회중 중심적 교회,' '권징(Discipline)이 있는 교회'가 그것이다.[2)]

형제단은 성경에 나타난 침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신앙고백의 행위로 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형제단은 유아세례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며 초대교회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습이라고 비판한다. 형제단은 침례의 방식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침수례(immersion)의 방식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3)] 그들은 또한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들은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있지만, 모든 신자는 교회의 구성원이자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여긴다.[4)] 형제단은 콘스탄티누스의 개종과 기독교 공인 이후 형성된 국가교회 체제가 교회 타락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이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참 교회의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5)] 이처럼 형제단이

---

2) 남병두, 『침례교회 특성 되돌아보기: 신약성서적 교회회복을 위하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5), 124-129.

3) 윌리암 맥도날드/한국엠마오성경학교 역, "침례," 『두 가지 예식-침례와 만찬의 의미와 실천에 관하여』 (서울: 한국엠마오성경학교, 1991), 12-22.

4) 김홍열, 『성경교리연구』 제3판 (청주: 도서출판 새벽별, 2012), 567-592.

핵심 가치로 여기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자유교회 전통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형제단의 출현을 자유교회 전통의 맥락에서 고찰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연구자는 16세기에 출현한 자유교회 전통의 무리인 아나뱁티스트(Anabaptists)로부터 시작하여 17세기에 시작된 침례교회를 살펴볼 텐데, 19세기에 형제단이 형성될 때 주요 인사 중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있었기에 그 역사는 형제단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다.

연구자는 다음으로 제3장에서 형제단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한국의 형제단 내에서 다수 견해는 형제단이 19세기에서 출현했다기보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된 교회의 후예라고 보는 것이다. 그에 못지않은 견해는 형제단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교회의 영적 계보를 잇는 무리 중 하나로서 19세기에 출현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견해가 역사적・신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19세기 유럽과 영국의 상황 가운데서 형제단이 출현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런 견지로 형제단 내의 형제단 기원론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각각의 견해를 평가하고 가장 타당한 견해가 무엇인지 논증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형제단이 출현한 19세기 브리튼제도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역사적・신학적 상황을 탐구하여 형제단 출현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것이다. 또한, 형제단을 형성하게 된 형제운동에 참여한 세 부류의 전통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형제단이 당시의 신학적 배경 가운데 출현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형제단이 그 세 전통의 신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제4장에서 형제단 출현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한국의 신학계 및 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한 무리를 소개함으로써 신학적 다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5) E. H. 브로우드벤트/편집부 역,『순례하는 교회』(서울: 전도출판사, 1992), 48. 이러한 이해는 자유교회 전통에 속한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II. 자유교회 전통과 그 역사

1. 아나뱁티스트

츠빙글리의 동료였으나, 분리된 스위스형제단(Swiss Brethren) 사람들은 성경해석과 그 적용의 입장 때문에 츠빙글리와 갈라서게 되었다. 그들은 콘스탄티누스에 의한 기독교 공인 이후 성경해석은 '콘스탄티누스의 구도',[6] 즉 로마제국의 종교로서의 기독교, 그리고 그 체제 안에서 결정된 교리들이라는 전제조건 안에서 해석되어왔다고 믿었다. 그들은 또한, 구약과 신약의 관계, 성경해석에서의 성령의 역할, 교회의 위치, 순종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성경이 더 명료한가에 대한 범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의 불연속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이 강조한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같은 의미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16세기 당시에 로마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유아세례를 시행하는 측면에서 구약의 신정일치(神政一致) 개념을 신약교회에 적용하여 벌어진 현상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국가교회 체제와 유아세례를 옹호한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성경 구절을 끌어왔다.[7] 그들이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성인 침례를 행하였기에 아나뱁티스트(anabaptists)라는 별명을 얻었다. 아나뱁티스트들은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로 여겼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에 대해 해석적 우선성을 가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의 관점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성경을 고찰하는 목적

6) 스튜어트 머레이/문선주 역, 『아나뱁티스트 성서해석학』 (대전: 대장간, 2013), 19.
7) Ibid., 21-22, 119.

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겸손히 순종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8)]

아나뱁티스트 운동은 종교개혁 진영에서 더 근원적인 개혁을 원했던 이들이 행한 초대교회 회복 운동이었다. 그들은 당시의 로마가톨릭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의 온전한 회복을 지향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별도의 무리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진영 가운데서 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분리의 길을 가게 되었다.

아나뱁티스트의 기본적인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초기 자료는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Schleitheim Confessions)이다. 스위스와 독일의 국경도시 슐라이트하임에서 열린 아나뱁티스트 회의에서 미카엘 자틀러(Michael Sattler, 1490-1527)가 대표로 작성한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은 교리적인 선언서는 아니었지만, 아나뱁티스트의 교회론을 보여주는 자료다.[9)]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는 회개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신들의 죄가 도말 된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스스로 침례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침례가 주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그 고백서는 침례를 받아 공동체의 일원이 된 자 중에 죄를 범한 자들을 징계해야 하며, 그것을 출교로 명시하였다. 또한, 공개적 권징을 받은 이들은 주의 만찬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였다.[10)]

아나뱁티스트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된 체제, 즉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

---

8) John E. Colwell, "A Radical Church: A Reappraisal of Anabaptist Ecclesiology," *Tyndale Bulletin* Vol. 38 (1987): 123. 아나뱁티스트들은 사실 한 무리가 아니었다.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이들을 통칭하여 아나뱁티스트로 부르지만,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종교개혁의 주류인사들과 신론과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등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유아세례와 국가교회 체제를 반대한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신비주의적 무리가 있었고,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이성주의자들도 있었다. 따라서 아나뱁티스트를 한 무리로 볼 수 없으며, 자유교회 전통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무리는 대부분의 핵심 교리는 같지만, 국가교회를 거부한 그룹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9) John H. Leith, ed., "The Schleitheim Confession," *Creeds of the Churche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2), 287.

10) William Lumpkin, *Baptist Confessions of Faith*, Revised Edition (Valley Forge: Judson Press, 1969), 25-26.

하였는데, 그들은 당시의 로마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주류 종교개혁자들 역시 구약적 개념의 신정일치 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11] 아나뱁티스트가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한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는 신약성서적 교회가 신자들의 교회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아나뱁티스트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교훈과 교회 질서를 위한 모델을 제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로 여겼다. 다만 구약과 신약의 교리적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경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그리스도를 선포함, 그리고 예표함'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를 밝히고 드러내는 선'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교회 행습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12] 예를 들어 구약성경에 나타난 '사형에 처하는 형벌'은 신약성경의 교회에 적용될 수 없으며, 신약성경에 실행된 유일한 징계 형태는 '그리스도인 금지'(the Christian ban, 즉, 회중에서 제외)라고 하였다.[13]

2. 침례교회

아나뱁티스트 외에 자유교회 전통의 입장에 선 또 다른 무리는 영국에서 출현하였다. 16세기 이후 영국국교회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국교회의 개혁을 시도하였던 이들이 있었다. 이들 중 영국국교회에서 개혁을 진행하

---

11) 『종교개혁가들과 그들의 의붓자식들』(*The Reformers and their Stepchildren*)에서 레너드 버듀인(Leonard Verduin)은 구약 사회와 모든 기독교 이전 사회가 '성례적 사회'(sacral society, 즉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헌신하는 종교에 의해 함께 묶인 사회')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성례적 사회'에 대한 거부로서 아나뱁티스트운동의 각 측면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아나뱁티스트들이 지향한 신앙은 '성례적 사회'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관료의존적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뮌스터 사건의 무리들도 '성례적 사회' 개념을 따랐다고 보았다. John E. Colwell, "A Radical Church: a Reappraisal of Anabaptist Ecclesiology," 122.

12) 스튜어트 머레이, 『아나뱁티스트 성서해석학』, 21-22.

13) John E. Colwell, "A Radical Church: A Reappraisal of Anabaptist Ecclesiology," 123.

기를 포기하고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독립된 자신들의 교회들을 형성하고 성서적 관례들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이들은 국교회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라 하여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이라 불리었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17세기 초에 자유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침례교인들이었다. 존 스마이스(John Smyth)와 토마스 헬위스(Thomas Helwys)에 의해 인도되던 무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을 때 암스텔(Amstel)강 근처에 있는 메노파(Mennonites) 교인 얀 문터(Jan Munter)가 소유했던 '동인도 빵집'(East India Bakehouse)에 고용되어 기거한 일로 인하여 그들과 교류하게 되었다.[14] 그들은 유아세례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1609년 영국의 분리주의 교회 중 최초의 성인 침례를 베풀었다.[15] 1611년 헬위스는 그의 무리를 이끌고 영국으로 돌아와 런던의 스피탈필드(Spitalfield)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로써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침례교회가 영국 땅에 비로소 설립되었다.[16] 이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보편 속죄 견해를 취하였기에 일반 침례교회(General Baptist)로 불리었다.

일반침례교회보다 온건한 반(半)분리주의(semi- Separatism) 회중에서 비롯된 침례교회가 영국에서 발생하였다. 그들의 구원론 입장이 제한 속죄 입장을 취하였기에 특수침례교회(Particular Baptist)라고 불리었다. 특수침례교회는 유라시아 대륙의 아나뱁티스트들과 접촉이 없었지만, '신자의 침례, 신자 교회 회원'이라는 자유교회 전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역사가들은 1638년경이나 1633년경에, 런던에 특수침례교회가 세워졌다고 추정한다. 특수침례교회의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The Second*

14) Leon McBeth, *The Baptist Heritage* (Nashville, TH: Broadman Press, 1987), 34-35.
15) Glenwood Clayton, "Thomas Helwys: A Baptist founding father,"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Vol. 8, No. 1 (Jan 1973): 5.
16) Leon McBeth, *The Baptist Heritage*, 37-38.

London Confession, 1677)는 “복음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파괴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시적 성도들이며 모두 특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제26장 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17] ‘신자들의 교회’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침례 대상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정하며(제29장 제2항).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는 침수, 즉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은 이 의식의 올바른 집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확정하였다(제4항). 특수침례교인들은 침수례가 성경적인 침례의 방식이라 믿었고 이를 복원하였다.[18] 19세기 초 같은 영국에서 발생한 형제단의 적잖은 지도자들이 특수침례교회 목회자들이었고, 그들의 교회론이 침례교회와 같다는 사실은 형제단의 역사성과 교회론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III. 역사적 산물인 기독교 형제단

1. 형제단 기원론

형제단 기원에 대한 문제는 이 연구의 목적과도 부합 하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형제단 내에는 형제단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정서가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형제단은 16세기에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도와는 다른 무리로서 초대교회로부터 발원하여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

17) William Lumpkin, *Baptist Confessions of Faith*, 285.
18) Leon McBeth, *The Baptist Heritage*, 45-46.

제단 내부에서 형제단 기원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발전하게 되면서 형제단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무리는 맞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직접적인 계승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같은 무리들이 교회사 가운데 영적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는 견해가 출현하였다. 최근에는 형제단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개신교회 내의 다양한 무리 중 한 무리로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회복하고자 했던 신앙 운동으로 출현했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형제단 내부에서는 아직 형제단 기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 논의하거나 정리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각 견해를 분류하고 정리하여 각 견해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명명하였다. 연구자가 분류한 형제단 기원론은 총 세 가지인데, '초대교회 계승설'(The Succession of the Primitive Church), '신약성경적 교회들의 영적 계승설'(The Spiritual Successi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es), '19세기 형제운동 기원설'(The Origin of the 19th-century Brethren Movement)이 그것이다.[19]

한국의 초기 형제단 지도자들은 침례교회의 J. M. 캐롤(Carrol)의 『피흘린 발자취』(*The Trail of Blood*)를 애독하였고, 캐롤이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되어 온 순전한 이들이 침례교회라고 주장한 것을 형제단으로 대체하여 수용하였다. 이 견해는 한국 형제단에게 형제단이 초대교회를 계승한 교회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한국 형제단의 초기 세대가 '초대교회 계승설'을 믿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견해를 수용한 이들은 신약성서적 교회는 교회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존재해왔고 형제단이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가톨릭교회나 개신교회와는 차별화된 순수한 교회라고 믿는다.[20] 그러나 이 견해는 그것의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19) 방기만, "기독교형제단 출현의 역사적・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28.
20) Ibid., 29-30.

있다. 예루살렘에서 출현한 최초의 교회는 사실 그 이후 출현한 모든 교회의 기원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사 가운데 출현한 모든 무리가 자신들을 한 계보의 연속선으로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논리이다. 따라서 입증 불가능한 것을 역사적 사실로 주장할 수는 없다.

'신약성경적 교회들의 영적 계승설'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무리들을 한 계보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교회사 가운데 계속해서 유사한 무리들이 나타났고, 19세기의 형제단은 그 가운데 하나라는 논리이다. 이 관점이 '초대교회 계승설'과 다른 점은 최초의 교회였던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이후 동질성을 가진 순수한 교회들이 실질적인 계승 관계에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 기원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특정 그룹들이 각 시대에 별도로 존재한 무리들이었지만, 그들의 사상과 행습이 공통된 영성에 기반한다고 이해한다. 이 견해는 현재 한국 형제단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수용하고 있는 기원론이다. 이 기원론은 형제단 내부에서 타 교단들과 비교할 때 자기 스스로 정체성과 자긍심을 확고히 할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형제단은 스스로 자신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온 운동, 즉 초대교회의 영성과 근원적 회복을 추구하는 운동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사도시대 이후로 이어진 여러 운동과 형제운동 사이의 유사성을 보여줌으로써 형제운동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어진 연속적인 영적 유산으로 영국국교회에 전혀 뒤지지 않는 정통성을 가진 교회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21]

브로우드벤트(Edmund Hamer Broadbent)는 『순례하는 교회』(*The Pilgrim Church*)에서 "신약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자 했던 신자들로 이루어진

21) F. Roy. Coad, *A History of the Brethren Movement* (Vancouver: Regent College Publishing, 2001), 91.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그러한 교회들이 계보로 연결되지 않고도 시대마다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이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2] 그는 주류 교회사가들이 이단으로 분류했던, 바울파, 보고밀파, 알비파, 발도파 등에 대해서 그들의 신학과 실행이 승자들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변호하면서 그들을 초대교회의 영성의 맥을 잇는 무리들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는 16세기의 아나뱁티스트 또한 초대교회의 영성을 잇는 무리였다고 평가하였으며,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진실성이 주류 무리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왜곡되고 매도된 대표적인 무리라고 아나뱁티스트를 변호하였다.[23] 브로우드벤트의 『순례하는 교회』는 한국 형제단의 교회사에 대한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약성경적 교회들의 영적 계승설'은 형제단과 영적 혈연관계에 있다고 분류한 과거의 분파들이 과연 영적 혈연관계에 있다고 할 만큼 유사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실제로 형제단 학자들이 초대교회의 영적 맥을 잇는 신약성서적 교회로 분류하여 형제단과 같은 계보로 인정하는 무리들은 핵심 교리에 있어서 형제단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바울파(Paulicianism)는 주후 650년부터 872년까지 아르메니아와 비잔틴 제국(AD 330-1453)의 동부에서 번성한 분파로 예수에 대해 양자론(養子論・Adoptionism)을 주장하였고 이원론자로 비난받았다.[24] 보고밀파(Bobomils)는 10세기 중반에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영지주의 분파로 가시적인 세계가 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으며, 물질은 그 자체가 악하다고 믿었

22) E. H. 브로우드벤트, 『순례하는 교회』, 24-25. 이와 유사한 표현이 침례교회의 "성서적 가르침의 연속설"로 맥베스(H. Leon McBeth)가 분류하였다. Leon McBeth, *The Baptist Heritage*, 56.

23) Ibid. 브로우드벤트의 주장은 침례교회의 "성서적 가르침의 연속설"과 유사한데, 강력한 초대교회주의자들이 갖게 되는 공통된 관점이라 할 것이다.

24) Robert Andrew Baker, *A Summary of Christian Histo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113.

다.[25] 12세기 후반에 출현한 카타리파(Cathars)는 남부 프랑스에 있는 그들의 주요한 근거지인 '알비'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알비파(Albigenses)라고도 불리기도 하였는데[26] 그들은 가현설적 기독론을 주장하였다.[27] 이상과 같은 교리는 형제단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는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형제단은 이원론자들도 아니며 기독론에 있어서도 종교개혁 전통과 같은 견해를 취한다. 위에 언급한 무리들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는 형제단의 주장과 같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적 입장은 형제단과 사뭇 다르다. 형제단은 종교개혁 전통의 핵심 교리를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단지 교회론의 입장에서 차별성을 띤 것이므로 위의 무리들과 형제단이 같은 무리라고 분류할 수는 없다.

'19세기 형제운동 기원설'은 형제단을 직접적으로 19세기 초에 브리튼 제도에서 일어났던 형제운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 지향적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1960년대 후반 형제단 내부에서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그 결과로 등장한 형제단 기원설이다. 이 기원설을 주장한 학자 중 한 사람인 코드(Roy Coad)는 루터교회나 개혁교회와 구별된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하고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 회심의 체험이 확인된 이들로 구성된 교회를 이루고자 했던 아나뱁티스트들이라고 주장하였다.[28] 그는 침례교인들이 그러한 사상을 계승한 자들이며,[29] 형제단이 그들처럼 신자들이 모인 교회의 개념을 따르는 부류의 한 그룹으로 19세기에 출현한 것이라고 보았다.[30] 코드와 같이 형제단이 19세기의 사회적・영적

25) 윌리스턴 워커/송인설 역, 『기독 교회사』 (파주: CH 북스, 1993), 296.
26) Ibid., 340.
27) Robert Andrew Baker, *A Summary of Christian History*, 187.
28) F. Roy. Coad, *A History of the Brethren Movement*, 96.
29) Ibid., 99.

상황 가운데 일어난 형제운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룹이라고 본 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로우던 외에 엠블리, 존 바버(John Barber), 그리고 네이단 델린 스미스(Nathan Delynn Smith)가 있다. 이 기원설은 현재 한국 형제단 내에서는 주된 기원론은 아니지만, 영미권의 형제단에서 연구 및 출판을 통하여 가장 최근에 대두되어 수용되고 있는 관점이다. 이 기원론은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실증적인 기원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기원설이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기원설임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작업이 되었다.

2. 형제단 출현의 배경

18세기 후반은 역사의 일대 전환기였다. 대서양 건너 식민지였던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럽의 국가들과는 또 다른 과정을 거쳐 새로운 국가로 태어났다. 유럽 본토에서는 프랑스 혁명(The French Revolution, 1789년)으로 공화정이 탄생했으나, 쿠데타로 정권을 얻은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었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나폴레옹 전쟁은 계몽사상에 대한 실망감을 유럽인들에게 안겨주었고, 낭만주의 풍조가 확산하게 하였다.[31] 낭만주의적 기조(基調) 아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나 신학보다는 개인의 영적 체험이나 영적 역동성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32] 19세기 초에 초월적 은사와 종말론을 중심으로 한 신앙 운동을 주도했고 형제단의 초기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에드워드 어빙(Edward Irving)은 독일의 낭만주의와 관념주의(idealism) 철학을 영

30) Ibid., 99-100.

31) Claude Welch, *Protestant thought in the Nineteenth Century. Vol. 1, 1799-187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2-4.

32) Bill R. Austin, *Austin's Topical History of Christianity*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1983), 374.

국에 소개한 새뮤얼 테일러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33]와 친분이 있었고, 그로부터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34] 형제단 학자 마크 스티븐슨(Mark R. Stevenson)은 낭만주의적 기조가 형제단에 미친 영향은 다음의 네 가지 성향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첫째, 신앙을 이성보다 더 높이 여기도록 하였다. 둘째,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대한 확신을 낳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소 신비적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넷째, 교회의 파멸 개념을 토대로 한 비관적 염세주의로 나타났다.[35]

형제운동이 발생한 19세기 초 영국은 18세기부터 이어진 산업혁명(The Industrial Revolution)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격변이 일고 있었다. 수공업자들은 대량생산 시스템을 갖춘 공장들과 경쟁할 수 없었기에 공장 근로자들이 되었다. 산업혁명으로 국가 경제는 발전했지만,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의 주거문제와 어린이 노동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36] 따라서 19세기 초의 영국인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즉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혁을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격변의 상황에서 기존 권위로부터의 이탈과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발생은 개인적이고 새로운 영성에 대한 갈증을 유발했고, 이러한 상황이 새로운 신앙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형제운동의 주역들은 소외된 고아들을 돌보고 후원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였고, 성경의 미성취 예언의 사실성을 강조하였으며, 교회 전통이나 교리적 논의보다 개인적인

---

33) Ibid., 376.

34) 데이비드 W. 베빙턴/채천석 역, 『복음주의 전성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196-197.

35) Mark R. Stevenson, *The Doctrine of Grace in An Unexpected Place: Calvinistic Soteriology in Nineteenth-Century Brethren Thought*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7), 2-3. ‘교회의 파멸’ 개념은 존 넬슨 다비(John Nelson Darby)가 주창했으며 형제단이 분열하는데 작용한 주요 사상 중 하나로서 비개방적 입장의 형제단에서 고착화 되었다.

36) Bill R. Austin, *Austin’s Topical History of Christianity*, 387.

신앙체험과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었다. 또한, 그들은 현실의 암울한 측면을 넘어설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강조하였다.[37]

19세기에 영국은 18세기에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 영국국교회 내의 부흥운동으로 시작된 감리교운동, 그리고 모라비안과 침례교회의 윌리엄 캐리(William Carry) 등에 의해 확산된 현대 선교운동 등의 흐름의 연장선에 있었다. 경건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자신만의 조직화한 체제를 통하여 감리교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웨슬리와 옥스퍼드의 홀리클럽에서 함께 활동했던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는 자유의지와 저항할 수 있는 은총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웨슬리의 본(本) 무리와 견해를 달리하는 칼뱅주의 감리교도의 작은 무리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는 감리교도는 웨슬리의 지도력 아래로 통합되었다. 감리교운동은 18세기에 시작되어 정점에 올랐지만, 형제운동이 시작된 19세기 초에도 여전히 영국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18세기에 일어난 부흥 운동의 첫 번째 유산은 전통 기독교 교리들을 지키려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모두 합리주의에 저항했으며, 세속 문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부흥 운동의 두 번째 유산은 경험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들은 교리에 대한 단순한 명목상의 동의가 자동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않으며, 중생의 경험이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보았다.[38] 이러한 두 가지 요소 모두가 형제단이 추구하는 가치였다. 결국, 형제단을 형성한 형제운동은 19세기 초 영국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에서 나타난 하나의 신앙 운동이었다.

---

37) 방기만, “기독교형제단 출현의 역사적・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79-80.

38) Roger E. Olson, *The Story of Christian Theology: Twenty Centuries of Tradition & Reform*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9), 516.

3. 형제단을 형성한 세 부류

형제단은 다양한 교회 전통을 배경으로 한 이들이 형제운동에 합류하면서 형성되었는데, 크게 세 부류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세 부류는 첫째, 영국국교회 전통, 둘째, 침례교회 전통, 셋째 퀘이커 전통이다. 연구자가 초기 형제단을 형성한 전통을 세 부류로 정리한 것은 형제단의 출현과 이후 역사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 인사들의 출신 교단과 신학적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 세 전통 이외의 전통 출신 인사들도 있었지만, 이 세 부류의 전통의 인사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신학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부류인 영국국교회 전통의 형제단은 자생적으로 주의 만찬을 행하던 무리들의 연합으로 비롯되었다. 19세기 초 브리튼제도 내에서는 영국국교회 신자 중 주의 만찬을 행하는 작은 무리들이 있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복수의 주의 만찬을 행하던 무리들의 통합, 그리고 합류의 과정에서 형제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산물이 형제단이다.[39] 최초의 연합은 1829년, 에드워드 크로닌(Edward Cronin, 1801-1882)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리와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Anthony Norris Groves, 1795-1853)의 영향을 받은 무리의 연합이었다. 그중 후자는 존 기포드 벨렛(John Gifford Bellett, 1795-1864)이 주도하는 무리였는데, 그 무리의 모임에서 그로브스가 형제운동의 기초가 되는 “떡을 뗄 자유”(제도를 벗어나 자유롭게 주의 만찬을 행할 자유)와 “사역의 자유”(제도적 기준이 허용하

39) 로우던은 그들을 세 무리로 보았다: 첫째, 비국교도로 구성된 무리, 둘째, 국교회 내에서 영적 열망이 채워지지 않은 국교도의 무리, 셋째, 비국교도와 국교도가 혼합된 무리. 그러나 연구자는 복수의 자생한 무리들의 연합으로 형제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그 무리들을 셋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리(콜링우드와 파넬의 떡을 떼는 모임)에 대한 근거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파넬(콩글턴 경)에 대해 다룰 때보다 구체적으로 논하려고 한다. Harold H. Rowdon, *The Origins of the Brethren* (London: Pickering & Inglis LTD., 1967), 37.

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신자의 사역 참여)를 제시하였다. 이 원리는 형제단의 주요 원리가 되었으며, 이후 발생한 다양한 무리들 연합의 첫 시작점이라 할 수 있기에 이 연합을 형제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40] 이 두 무리의 연합 직후 윌리엄 스토크스(William James Stokes, 1807-1881)를 비롯한 세 사람의 주의 만찬 무리가 더해졌다.[41]

영국국교회 사제 또는 신자였던 벤자민 뉴턴(Benzamin W. Newton), 존 넬슨 다비(John Nelson Darby, 1800-1882), 제임스 해리스(James L. Harris, 1793-1877), 캡틴 퍼시 프랜시스 홀(Captain Percy Francis Hall, 1804-1884), 그리고 조지 위그램(George V. Wigram, 1805-1879)이 잉글랜드의 플리머스(Plymouth)에서 또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1,000 명이 넘는 규모를 이룸으로써 '플리머스 형제단'(Plymouth Brethren)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초기 형제단의 구성원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형제단이 분열된 후 개방형제단[42]의 주축을 이룬 이들은 침례교회 출신의 사람들이었다. 잉글랜드의 브리스톨과 반스테플에 있던 특수침례교회 회중의 목회자들이었던, 조지 뮐러(George Müller)와 헨리 크레이크(Henry Craik), 그리고 로버트 채프먼(Robert C. Chapman)은 자신들의 교회가 더 성경적인 모

40) 형제운동 시작의 핵심이 되는 두 무리가 1829년 11월부터 피츠윌리엄 스퀘어(Fitzwilliam Square)에 있는 허친슨의 집에서 연합하게 되었다. 그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는 그로브스의 제안에 공감하여 모이던 벨렛-허친슨 무리였고, 다른 한 무리는 윌슨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던 '크로닌의 무리'였다. 피츠윌리엄 스퀘어의 연합 모임은 그로브스가 새로운 모임의 원리(이후 형제운동의 원리가 됨)를 제안한 이후 각기 자생하던 무리들의 연합을 이룬 최초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형제운동의 첫 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방기만, "기독교형제단 출현의 역사적・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112.

41) Ibid., 105-111.

42) 형제단이 출현한 직후 그들은 두 계열로 분열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어권 형제단에서는 두 계열의 형제단을 'Exclusive Brethren'과 'Open Brethren'으로 표기한다. 연구자는 'exclusive'를 '비개방'으로, 'open'을 '개방'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두 계열의 차이는 자신들이 확신한 신학적 영역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닫힌 입장인가, 열린 입장인가에 있다. Ibid., 10.

습을 나타내길 기대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연합,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으로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그 표지로 삼았다. 뮐러, 크레이크, 체프먼은 아마도 초기 침례교회의 전통에 대한 향수와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3] 더블린과 플리머스에서 먼저 시작된 형제운동은 그들의 추구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특수침례교회 목사들이었던 뮐러와 크레이크가 국교회 출신 인사들에 의해 시작된 형제운동에 합류하게 된 것은 파워스코트 예언 학회(Powerscourt Prophecy Conference)를 통한 형제운동 주요 인사들과의 접점이 실제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다. 1831년에 개최된 그 예언 학회에 다비뿐만 아니라, 형제단의 초기 지도자들인 뉴턴, 벨렛, 위그램이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1833년의 그 예언 학회에는 크레이크와 뮐러가 초대되었다. 그들

43) 초기 침례교인들의 행습과 초기 형제단의 행습을 비교하면 적잖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 침례교회는 영국국교회의 안수 기준을 거부하고, 모든 기독교인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Robert G. Torbet, *A History of the Baptists*, 3rd ed. (Valley Forge: Judson Press, 1963), 80. 이것은 19세기의 형제단이 주장한 '사역의 자유' 개념과 유사하다. 초기 스코틀랜드의 침례교회들은 "목사의 복수제"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형제단에서는 그 시작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이후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방식이다. 또한 주의 만찬에 대해 초기 침례교인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매주 또는 자주 행하고자 하였다. 그 집례에 있어서도 일부 침례교회에서는 목사가 아닌 다른 교인들에 의해서도 집례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Ibid., 116-117; Leon Mcbeth, *The Baptist Heritage,* 92. 형제단은 주의 만찬을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겼으며, 매 주일 행하고자 하였고, 그 집례에 있어서도 안수받은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기 침례교 예배에서는 성서 주석을 원칙으로 한 말씀 대언자들뿐 아니라 예배 참석자들도 성서의 본문들을 다루면서 회중 앞에서 그들의 성서이해를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Ibid., 91-92. 이 또한 19세기의 형제단이 내 세운 '사역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행습이다. 침례교회는 예배참석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성을 요구함으로써, 각 개인들이 성령께서 그들 각자를 언제든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행습은 19세기의 형제단의 자유로운 예배 행습에서 다시 나타났다. 초기 침례교회는 주의 만찬에 선행하여 교회의 교제식사인 '애찬'(love feast)을 행했다. Ibid., 92. 19세기에 출현한 형제단은 매주일 성도간의 교제 식사인 애찬을 즐겼으며 이후 형제단의 주요한 특징이 되었다. 방기만, "기독교형제단 출현의 역사적・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121.

은 그 예언학회를 중심으로 교제권을 형성하였고, 1829년 시작된 형제운동에도 자연스럽게 동참했을 것이다.

형제단을 형성한 세 번째 부류의 전통은 퀘이커(Quaker) 전통이었다. 1827-1828년에 북아메리카의 친우회(The Society of Friends)[44]는 극단적으로 신비주의적인 엘리아스 힉스(Elias Hicks)의 가르침에 의해 분열되었다. 1829년에 친우회의 런던 연례 회의에서 힉스의 가르침이 정죄되었지만, 영국에서 신비주의자들과 성서 권위를 우선시하는 이들 사이의 갈등으로 성서 권위를 우선시하는 이들이 퀘이커를 이탈했고, 그들 중 상당수가 형제단에 합류하였다.[45] 퀘이커의 합류는 형제단의 신학과 행습 중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경향을 더 강화하였다. 형제단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제도나 계획에 대한 거부의 경향이 크다.

형제단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지향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교단을 만들고자 하지 않았으며, 초교파적인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였다.[46] 그러나 그들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였고, 더 보수적인 입장의 비개방형제단은 같은 형제단 중에서도 그들과 신학적 입장이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교제권을 형성하였다. 그 무리는 영국국교회 사제 출신인 다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였고, 교회형태는 고(高)교회(The High Church)적 형태, 즉 중앙집권적 형태를 이루었다.[47] 반면에 형제운동의 주요한 가치였

---

44) 퀘이커라는 명칭은 그들 스스로가 붙인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 의해 붙여진 별명이다. 퀘이커교도가 자신들을 지칭하는 표현은 먼저 영문으로 'the Society of Friends'이며, 한국의 퀘이커는 '한국 친우회'라고 하거나 공식적으로는 '종교 친우회'라고 칭한다.

45) 방기만, "기독교형제단 출현의 역사적・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140.

46) 형제운동의 주요 원리를 제시한 그로브스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형제단이 개방과 비개방으로 분열된 이후 개방형제단을 통해 계승되었다.

47) Peter L. Embley,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Plymouth Brethren* (Cheltenham: St. Paul's College, 1966), 101; John Barber, *Who are the Brethren* (West Sussex: The Brethren Archivists and Historians Network, 2001), 27-28. 영국국교회 내의 고교회파는 로마가톨릭교회에서 행해온 성례전의 회복을 주장하였는데, 비개방형제단이 이

던 교파를 넘어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이루고자 했던 무리는 개방형제단으로서 침례교회 출신의 뮐러, 크레이크, 채프먼 등이 주요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외의 차이에 대해서 보다 열린 입장을 견지하였고, 자유교회 전통의 교회론을 추구하였다. 그들의 교회론은 신자의 침례와 신자의 자발적 모임으로서의 교회, 회중 중심, 지역교회의 독립성이 그 골자였다.[48] 형제단에 세 번째로 합류한 무리인 퀘이커 전통의 인사들은 형제단 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보다 비정형화된 행습을 낳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형제단이 개방과 비개방으로 분열될 때 퀘이커 출신의 사람들은 개방의 진영에 있었다.

개방과 비개방으로 각자의 길을 간 형제단은 하나의 교제권에 있지 않게 되었고, 각기 발전해 갔다. 비개방형제단에서는 교리적 또는 그들의 중앙집권적 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분열이 발생하였다. 20세기 중반부터는 비개방형제단에서 분리되어 나온 무리의 일부가 개방형제단으로 합류하기도 하였다.[49] 시간이 지나서 교회와 구성원의 숫자는 개방형제단이 비개방형제단을 추월하게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형제단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개방형제단이라 할 수 있다. 개방형제단의 선교는 믿음선교(faith mission)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후원이나 안전의 보장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적극적인 선교를 펼쳐서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어서 유럽 대륙,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서인도 제도의 작은 섬들에 이르기까지 형제단 교회들이 설립되게 하였다.[50]

런 견해를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집권적인 교회의 형태와 유아세례를 고수한 측면에서 고교회적 형태를 취했다고 보는 것이다.

48) 방기만, “기독교형제단 출현의 역사적・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208-212.

49) Ibid., 190.

50) Ibid., 195-197. 믿음선교를 행한 형제단의 대표적 인물들은 그로브스, 뮐러, 허드슨 테일러(James Hudson Taylor) 등이다. 허드슨 테일러는 형제단에서 침례받고 중국 선교를 떠난 인물로 형제단의 믿음 선교를 보다 폭넓게 실현한 선교사다. Ibid., 93-95.

IV. 형제단 출현의 의의

형제단은 19세기에 출현한 자유교회 전통의 범주에 드는 한 무리다. 자유교회 전통은 이미 16세기의 종교개혁기에 유럽에서 출현했는데, 아나뱁티스트라 불리는 이들이었다. 17세기에는 영국에서 침례교회가 출현했는데, 그들 역시 자유교회 전통 지지자들이었다. 19세기에는 형제단이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 시대는 달랐지만,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속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각기 신약 성서적 교회를 추구하였다. 그들이 추구했던 신약 성서적 교회는 '신자의 침례와 신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 교회였다.

16세기 종교개혁의 한 축을 이루었던 아나뱁티스트들은 박해를 무릅쓰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들은 교회 타락의 원인을 회심의 체험 없이 타의에 의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국가교회 체제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행습과 규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따라서 구약 이스라엘이 법적으로 행해야 했던 십일조 제도와 육체적 체벌을 가하는 형벌 제도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었다. 그들은 교회에서 성도가 하는 헌신은 국가가 개입한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교회의 권징은 주의 만찬에서 제외하는 영적 형태의 체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가르침(벧전 2:9) 대로 교회의 회원 모두가 교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믿었다. 아나뱁티스트가 추구한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의 회복, 즉 근원적 개혁을 추구한 것이었다. 아나뱁티스트는 주류 종교개혁자들이 미흡했던 부분, 즉 이신칭의(以信得義) 복음이 개인에게 실제적 신앙으로 수용되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17세기의 침례교운동은 당시의 국교회를 대표로 한 기성교회가 제도화 형식화됨에 따라서 교회 구성원 각자의 신앙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운동이었다. 침례교인들은 '신자의 침례, 신자 교회 회원' 개념이 신약 성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으로 보았고, 그러한 교회를 그들의 시대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당시 오래된 전통이었던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신앙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렇게 신자의 침례를 행한 사람들을 지역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등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던 19세기 브리튼제도에는 새로운 신앙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관념적이고 형식화된 기성교회가 아닌 생동감 있고, 개인의 영적 체험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신앙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형제운동이었다. 형제운동의 주역들은 각기 출신 교단, 즉 기독교 전통이 다양했지만, 분명하게 신앙 체험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이루고자 했다. 그들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국가교회 체제로 인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며, 교회 회원 각자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과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추구하였다.[51] 형제단은 2세기 전에 침례교인들이 추구했던 자유교회 전통의 개념을 19세기 초에 다시 제시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7세기에 침례교인들이 그랬던 것과 유사하게 형제단은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교계에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을 강조한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16세기에 유사한 신앙운동이 있었고, 17세기 역사 동질의 신앙 운동이 있었지만, 교회의 제도화와 형식화의 문제는 일부 무리의 개혁 시도와 신앙 운동으로 해결될

51) Ibid., 223.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교회사 가운데서 새로운 분파의 출현이 각 시대의 기성 기독교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신앙 운동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형제단의 출현은 그 맥락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에 출현했고, 현재 전 세계에 그리고 한국에도 존재하는 형제단이 한국 교회에도 그 의의가 있다. 자유교회 전통으로 요약할 수 있는 형제단이 추구한 가치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속주의와 교권주의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가치로서 의의가 있다.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훈육하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신약 성서적 교회의 본질에 근접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 만약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쉽게 용인된다면,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는 본질로부터 이탈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들이 육신의 욕구와 세속적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단지 선언이나 지적 동의가 되지 않고, 세계관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으로 거듭남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분명한 회심의 체험을 강조하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현실화하는 주요한 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전 신자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종교개혁 전통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사역과 교회 운영을 독점하는 체계로 인하여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교회 회원인 성도들은 관람자가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형제단이 추구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교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역 참여는 충분히 한국 교회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52]

52) Ibid., 223-224.

V.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단은 19세기 초 브리튼제도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 출현한 자유교회 전통의 범주에 속하는 한 무리다. 형제단 내에는 세 가지 형제단 기원설이 존재한다. 그중 형제단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로부터 순수하게 이어 내려온 교회라거나, 그때로부터 영적 계보로 이어져 내려온 성경적 무리 중 하나라는 주장에 대해 연구자는 학문적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연구자는 형제단이 19세기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 일어난 형제운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밝혔다. 형제단은 그들의 출현 당시의 상황, 그들이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을 고려할 때 16세기 종교개혁기에 시작된 자유교회 전통이라는 범주 안의 다양한 무리 중 하나다. 형제단의 특징인 신자의 침례, 신자의 자발적 모임으로 형성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성경적 기준에 부합한 권징의 실행이 자유교회 전통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초기 형제단의 주요 인사 중 침례교회 목회자들은 형제단 분열 후 개방형제단의 교회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형제단의 교회론은 선대에 출현한 침례교회 교회론과 역사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침례교회 교회론은 곧 자유교회 전통의 교회론의 범주에 속한다.

형제단은 모든 구성원이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길 자유가 주어지며, 인간적 제도나 후원을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 선교의 대표주자들이다. 형제단 내에 잘 알려진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나 조지 뮐러뿐만 아니라 '중국 내지 선교회'(China Inland Mission)를 세우고 헌신적 선교를 한 허드슨 테일러 또한 형제단 출신의 믿음 선교의 훌륭한 모범이다.

형제단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기독교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대안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자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선교를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형제단의 신학과 실행이 드러나서 좋은 참고가 됨으로써 한국교회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교계에 울림이 되는 그룹들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기독교형제단, 형제운동, 자유교회전통, 형제단 기원론, 개방형제단, 비개방형제단

Christian Brethren, Brethren Movement, Free Church Tradition, Brethren Origins, Open Brethren, Exclusive Brethren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ical and Theological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the Christian Brethren

Bang, Gi Man
Korea Baptist University and Seminary/Seocheongju Churc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heological origins of the Christian Brethren, which is not commonly known within Korean Christianity. The Christian Brethren was a religious movement that emerged within the historical and theological context of Europe and the British Isles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mong the key figures of the Brethren movement and the driving force of the movement were pastors of the Special Baptist Church, wh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ecclesiology. The ecclesiology of the Brethren reflects the Free Church tradition. The Free Church refers to an ecclesiology that arose in opposition to the state church system, which had long been taken for granted in the European Christian world. The Brethren emphasized the core values of Christianity and proposed new alternatives for practicing religion and attracting devotees.

참고문헌

김홍열.『성경교리연구』 제3판. 청주: 도서출판 새벽별, 2012.

남병두.『침례교회특성 되돌아보기』.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5.

던바, 도날드 F./최정인 역.『신자들의 교회』. 대전: 도서출판 대장간, 2015.

맥도날드, 윌리암/한국엠마오성경학교 역. "침례."『두 가지 예식-침례와 만찬의 의미와 실천에 관하여』. 서울: 한국엠마오성경학교, 1991.

머레이, 스튜어트/문선주 역.『아나뱁티스트 성서해석학』. 대전: 대장간, 2013.

방기만. "기독교형제단 출현의 역사적・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022.

베빙톤, 데이비드 W./채천석 역.『복음주의 전성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브로우드벤트, E. H./정병은 역.『순례하는 교회』. 서울: 전도출판사, 1990.

스탠리, 브라이언/이재근 역.「복음주의 세계 확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워커, 윌리스턴/송인설 역.『기독 교회사』 파주: CH 북스, 1993.

칼렌, 베리 L./배덕만 역.『급진적 기독교』. 대전: 대장간, 2010.

Austin, Bill R. *Austin's Topical History of Christianity.*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1983.

Baker, Robert Andrew. *A Summary of Christian History.* Nashville : Broadman Press, 1959.

Barber, John. *Who are the Brethren.* West Sussex: The Brethren Archivists and Historians Network, 2001.

Clayton, J Glenwood. "Thomas Helwys: A Baptist Founding Father." *Baptist History and Heritage* Vol. 8, No. 1 (Jan 1973): 2-15.

Coad, F. Roy. *A History of the Brethren Movement*. Vancouver: Regent College Publishing, 2001.

Colwell, John E. "A radical church: A Reappraisal of Anabaptist Ecclesiology," *Tyndale Bulletin* Vol. 38 (1987): 119-141.

Dickson, Neil T. R. and Tim Grass eds., *The Growth of the Brethren Movement.* Milton Keynes: Paternoster, 2006.

Embley, Peter L.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Plymouth Brethren.* Cheltenham: St. Paul's College, 1966.

Lumpkin, William. *Baptist confessions of Faith.* Revised Edition, Valley Forge: Judson Press, 1969.

McBeth, Leon *The Baptist Heritage.* Nashville, TN: Broadman Press, 1987.

Olson, Roger E. *The Story of Christian Theology: Twenty Centuries of Tradition & Reform.*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9.

Rowdon, Harold H. *The Orignis of the Brethren 1825-1850.* London: Pickering & Inglis LTD., 1967.

Stevenson, Mark R. *The Doctrine of Grace in an Unexpected Place: Calvinistic Soteriology in Nineteenth-Century Brethren Thought.*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7.

Torbet, Robert G. *A History of the Baptists*, 3rd ed. Valley Forge: Judson Press, 1963.

Welch, Claude. *Protestant thought in the Nineteenth Century. Vol. 1, 1799-187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접수일: 2024년 10월 25일	논문심사일: 2024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22일